

SM엔터, 1분기 매출 21% 성장... "콘서트·MD 고성장 지속"

등록 2026.05.07 08:56:49



[서울=뉴시스] NCT 드림 네 번째 투어 피날레 공연. (사진 = SM엔터테인먼트 제공) 2026.03.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K-팝 개척사' SM엔터테인먼트(대표 장철혁, 탁영준)가 올해 1분기 성장세를 이어갔다.

SM은 지난 6일 실적 발표를 통해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2791억원, 영업이익 38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6%, 18.5% 증가한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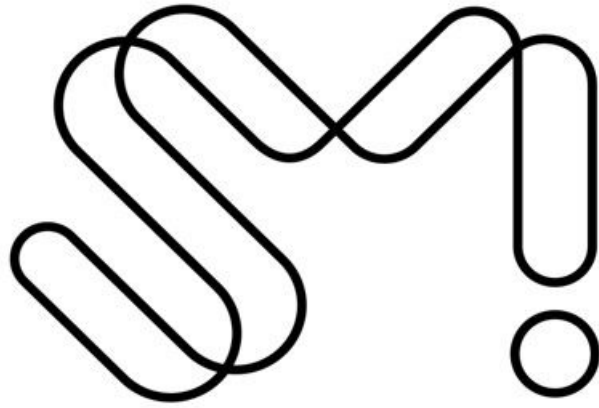
1분기 별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한 1893억원을 기록했다. 콘서트 매출은 56.0%, MD라이선싱 매출은 20.3% 증가하며 별도 기준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 동기 일회성 음원 매출 기저 영향으로 5.9% 감소한 388억원을 기록했으나, 해당 일회성 요인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수준이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9% 증가한 389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성과는 핵심 IP의 음반 판매량 증가와 공연 규모 확대에 따른 콘서트 매출 성장, MD-라이선싱 부문의 성장과 디어유 연결 편입 효과, 주요 중속법인의 매출 확대가 반영된 것으로, SM은 이에 따라 콘서트와 IP 기반 매출 비중이 확대되며 매출 구조 역시 지속적으로 다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분기에는 슈퍼주니어(SUPER JUNIOR), 엔시티 드림(NCT DREAM), 에스파(aespa), 라이즈(RIIZE), 엔시티 위시(NCT WISH) 등 핵심 IP의 글로벌 투어가 이어지며 공연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 MD-라이선싱 부문에서는 엑소(EXO) 정규 앨범 발매

와 연계된 팝업 이벤트, NCT 위시 프로젝트, 에스파 투어 효과 등에 힘입어 응원봉 및 기획 MD 판매가 증가했다.



SM
ENTERTAINMENT

[서울=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 로고. (사진 = SM엔터 제공) 2026.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주요 종속법인 실적도 개선됐다. SM C&C는 광고 및 매니지먼트 매출 성장, SM재팬은 당사 아티스트들의 해외 활동 확대에 따라 매출이 증가했다. 디어유는 연결 편입 이후 안정적인 수익 기여를 이어가고 있다. 종속법인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하며 수익성이 개선됐다.

SM은 2분기와 3분기에도 경쟁력 있는 아티스트 라인업을 앞세운다.

2분기에는 태용, 에스파, NCT 위시의 정규 앨범과 샤이니, 라이즈, 하츠투하츠의 미니 앨범, 려욱의 싱글이 발매될 예정이다. 3분기에는 태연, NCT 127의 정규 앨범과 슈퍼주니어-83z, 레드벨벳, 웨이션브이(WayV)의 미니앨범, 예성, 민호, 유노윤호 등의 신보가 연이어 공개된다.

콘서트 부문 역시 글로벌 무대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이 이어진다. 2분기 및 3분기에는 서울을 시작으로 북중미, 유럽까지 이어지는 에스파의 새로운 글로벌 투어가 시작된다. 엑소의 투어 콘서트와 첫 솔로 콘서트 투어에 나서는 유노윤호와 아이린의 콘서트 등도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